

‘9평 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4년 7월 11일까지 1억 7,077만 명의 중국 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성명했다.

## 박해에 팔을 걷고 나서던 촌 간부가 ‘3퇴’하다

1999년 중공의 파룬궁 탄압 운동이 시작된 후 우리 마을의 중공 촌서기는 현지 파출소의 경찰과 협력해 마을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각종 소란과 박해에 팔을 걷고 나섰다.

2008년, 촌서기는 마을의 공안으로 임명되자 더욱 사악해졌다. 특히 2008년 올림픽 기간에 그는 파출소의 경찰과 결탁해 여러 명의 파룬궁 수련생 집에 찾아가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서명을 하라고 핍박했다. 그는 심지어 파출소의 검은 명단에 오르지 않은 7, 80세 되는 노인 수련생까지도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소위 ‘중점 대상’으로 검은 명단에 오른 파룬궁 수련생 촌민의 집을 세 차례나 찾아가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그는 이런 행패에 저항하는 촌민을 파출소로 납치해갔다. 파출소 소장과 부소장은 ‘심문’해도 꼬리 잡을 것이 없자 마을 공안에게 ‘보증’을 서고 이 촌민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인간의 이치로 말하면 마을의 공안을 책임진 촌서기 입장에서 이것은 더 없이 좋은 결과이고, 상급에 대해서나 하급에 대해서나 모두 명분이 있기에 자신에게도 대답할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장의 말대로 하지 않고, 기어이 촌민더러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이 촌민이 견결히 항거하여 오랫동안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되자 소장이 친히 이 촌민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바로 그해 가을, 이 촌 공안은 응보를 받아 양쪽 대퇴골 괴사에 걸렸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는 계속 응보를 받았다. 5살 난



2014년 7월 5일, 시드니에서 1억7천만 중국 민중의 ‘3퇴’를 성원

손녀가 집 때문 앞에서 놀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었고, 셋째 아들이 이혼했으며, 그는 외도한 죄로 촌 서기에서 해직되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일어설 수 없게 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2013년 말, 그는 대퇴골 수술을 했다. 마을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그가 보기에는 구할 방법이 없는 생명인 것 같지만, 자비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고 인정했다. 그리하여 한 수련생이 그에 대한 혐오감을 버리고, 그의 지난 일을 따지지 않고 선물을 사서 그를 방문했다. 그러자 그는 회개했고 그와 그의 아내를 이미 가입했던 중공의 모든 조직에서 탈퇴했다.

### 서로 다른 허베이 모 현의 두 ‘지부서기’

허베이 모 현 스리진에 같은 직무를 맡은 두 중공 촌지부서기가 같은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나이가 많은 선임 지부서기는 진상을 안 후 ‘3퇴(탈당, 탈단, 탈대)’를 하고, 선한 보답을 받았으나 후임 지부서기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신불(神佛)을 비방해 악보를 받았다.

현성과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은 현성과 왕래하는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70세가 넘는 류씨는 촌 지부서기에서 물러난지 10년 정도 된다. 2년 전 그는 파룬궁 자료를 보고 진상을 알게 되어 중공의 모든 조직에서 탈퇴했다. 이 몇 년 동안 류씨는 삼륜 전동차로 현성에서 공부하는 손자를 등·하교시키면서 때로는 부업거리가 생겨 매일 100위안씩 벌 때도 있었다. 매일 평안했고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매년 겨울이면 외지에 나가 부업을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4개월 동안만 일하고도 20만 위안의 순이익을 번다. 류씨는 작년 현성에 이층집을 구입했고 여섯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60세도 안 되는 새로 부임한 서기 장씨는 반대로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려도 듣지 않았고, ‘3퇴’도 거절했는데 그 태도가 매우 악랄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과 9월에는 현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적인 조직)과 결탁해 마을 사무실의 큰 길을 향한 담장에 파룬궁과 대법 사부님을 비방하는 구호를 붙였다. 그해 겨울 그의 외동아들이 술을 마신 후 욕실에서 익사했다. 진상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가 파룬궁을 박해했기에 악보를 받았고, 그 화가 자손에까지 미쳤다고 말했다.

## 호주국회에서 중공의 강제장기적출 반대 청문회를 개최

2014년 7월 16일, ‘호주 의원 강력 반 장기적출 조직’은 캔버라의 국회 의사당에서 처음으로 청문회를 열고 파룬궁수련생 100명을 초청하여 방청하게 했다.(오른쪽 사진)

청문회에서 호주 시드니 대학 마리아 피아타로네 싱(Maria Fiatarone Singh)교수가 ‘생체장기적출에서 법률과 의학윤리와 사회책임’이란 제목으로 실연 보고를 하여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국의 이튼 거트만(Ethan Gutmann) 중국문제 전문가도 호주의회와 영상연결로 의원들이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장기생체적출을 비난하는 것을 성원했다. 이번에 파룬궁수련생 100명을 초청하여 방청하게 한 것은 호주의 역사에서 처음이며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사례이다.

## 막노동꾼에서 백만장자로

[밍후이왕]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37세의 청년이다. 지난날 막노동을 하던 내가 사장이 되고, 농촌의 애송이가 도시에 와서 기업가가 되고, 빗쟁이에서 백만장자가 된, 자신이 걸어온 이 길을 되돌아 볼 때마다 격동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1997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나는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알게 되었고, 반본귀진의 도리를 알게 되어 정말 기뻐했다. 그러나 1999년 7월 20일 이후 대법은 억울함을 당하고 사부님은 모함을 당했다. 나는 베이징에 세 차례 청원을 갔다가 구치소에 세 번 구금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감옥에까지 갔다 왔으니 일생을 망쳤다고 말했다.

나는 생활을 위해 식당에서 샅일을 했고, 요리를 배웠으나 사장님은 임금을 주지 않아 땀 흘려 번 돈을 손에 쥐어 보지도 못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일을 그만 두고, 스스로 식당 영업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친구가 소개한 처녀와 결혼한 후, 우리 둘은 2천 위안의 빚을 내 작은 음식점을 꾸렸다.

우리가 수련하는 것은 진선인(真善忍)이다. 식당 영업은 나의 직업이기에 영업도 응당 '진선인'에 따라 해야 한다. 손님에 식당에 들어서면 자신의 집에 온 것처럼 포근함을 느끼고, 마음 놓고 잔 값에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성실을 첫 자리에 놓고 고객을 우선하는 지침을 세우고, 시시각각 손님을 생각하는 원칙에 따라 식당을 경영했다. 우리는 식재료를 살 때 좋은 것으로 진짜만 샀고, 질 좋은 음식에 가격도 알맞게 받았으며, 교활하게 힘들이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입하는 요리용 생육 가격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완성품의 가격보다도 더 비싼 것이다. 보통 연회석을 예약할 때는 3자리 이상인데 그 때에도 우리는 음식의 질을 유지하고 메뉴를 줄이지 않으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한 번은 15석을 예약한 고객이 있었는데, 정작 온 손님은 25석이 되어 10석이나 초과되었다. 나는 난감해하는 고객에게 걱정하



2014년 7월 12일, 네덜란드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댐(Dam)광장에서 파룬궁 공법을 시연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의 단체연공 장면은 많은 행인의 시선을 끌었다.

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전 진의 4개 대형 마트에 연락해 몇 가지 고급 숙식과 고급 야채를 배달시켰다. 그들이 제시한에 배달해 주어 연회가 시작될 때에는 상마다 음식이 풍성하고 향기가 넘쳐났다. 식사를 끝낸 고객은 자신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큰 도움을 주었고, 연회상의 요리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이었다고 연속 감사를 표시했으며, 지금 사람들이 모두 당신들과 같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록 이번 연회에서 원가는 좀 높았지만 이 고객은 우리 음식점의 우수함을 입증하는 산증인이 되었다.

우리들이 法輪大法(파룬다파) 真善忍(진선인)의 높은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하게 요구하여 더욱 좋은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하였기에 우리의 식당영업은 갈수록 번창해졌다. 영업이 잘되는 계절에는 고객을 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고객이 만원을 이룬다. 작년에는 800㎡인 식당 면적에 500㎡를 확장해 영업 면적이 1300㎡에 달했다. 한번은 친구가 예약하려고 했으나 이미 만원이 되어 나는 친구를 다른 식당에 소개했다.(글/더푸)

## 중공의 폭행, '강그리 빼앗다'

[밍후이왕] 과거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대가 중국을 소탕할 때 '3광'정책을 썼는데 바로 '강그리 죽이고, 강그리 소각하고, 강그리 빼앗는 것'이었다. 오늘 중공 토비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집 수색을 할 때 감행하는 강탈은 일본 침략군의 '강그리 빼앗는 것'을 넘어서다.

**술을 박살내고 밥그릇과 젓가락을 빼앗아 가다**

1999년 11월 28일, 허베이 바오딩이현 폐이산진의 한 신혼부부가 파룬궁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베이징에 갔다가 붙잡혀 돌아왔다. 이튿날, 진 서기 장쉐강이 3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몽둥이, 곡괭이, 철 몽둥이로 신혼부부의 새집 5칸을 박살냈다. 모든 가구, 이불, 옷, 금장신구, 골동품, 몇 천근의 밀, 옥수수, 면화, 땅콩, 식용유, 밥그릇과 젓가락 모두를 강그리 약탈했다. 가지고 가지 못할 밥술과 새 불박이 가구는 박살냈다.

농촌 지역에서 밥술(역주: 중국식 밥술은 직경이 100cm되는 굉장히 큰 것임)은 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 용구다. 중공 토비

들이 파룬궁 수련생의 밥술마저 빼앗아가거나 박살낸다는 것은 정말 악랄한 짓이다!

**관을 빼앗아 가다**

2008년 4월 15일, 후난 치둥현 파룬궁 수련생 관허쥔(管鶴軍)이 동관에서 악인에게 납치된 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악인들은 관허쥔의 집을 4번이나 수색하면서 그의 부모의 관마저 빼앗아 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사악하고 악질이라도 다른 사람의 관을 빼앗은 사람이 있는가? 노인이 사후에 쓸 물건마저 빼앗아 가는 이런 악인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온 세상에서 또 찾아 볼 수 있겠는가?

**장애인 일가의 식량을 강그리 약탈하다**

2001년 추수가 끝난 후, 헤이룽장 엔서우현 류똥향 타이안촌의 사악한 중공 촌서기 왕원룽은 촌장 자오파강과 함께 이 마을의 파룬궁 수련생 장티차오(張體超)에게 파룬궁 수련 포기를 강요했다. 장티차오가 수련을 포기하지 않자 악인들은 추호의 인성도 없이 콩 18마대, 옥수수 8마대, 팥 4마대를 강탈했고, 심지어 식량까지도 강그리 빼앗아 갔다.



그해 장티차오에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 중공의 악인들은 일가족의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 한 가정의 1년 노동과실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장티차오 전 가족의 식량 농지마저 빼앗았다.

중공 토비들이 파룬궁 수련생의 재산을 약탈하는 이유는 장쩌민의 사악한 박해정책과 상관된다. 장쩌민이 공공연히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라'고 했기에 바로 당년의 일본 침략자가 중국 사람에게 감행한 강그리 빼앗던 것과 같은 죄행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침략자의 죄행은 전쟁 시에 외적이 우리 중화민족에게 저지른 능욕이었으나, 중공이라는 정당은 오늘 이런 평화 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가정을 약탈한 것이다.